로그라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에서 뛰쳐나와 여행을 하며 위로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이야기

트리트먼트

소녀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온다. 자신의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답답한 건지 소녀는 알지 못한다. 소녀의 부모님은 소녀를 잡으려 하지 않는다. 소녀를 가볍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른다. 소녀가 박차고 나간 문은 덜렁거리다 멈춘다.

소녀는 버스를 타고 무작정 간다. 산이다.

어릴 적, 소녀는 이 산에 한 번 왔던 적이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왔었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은 있다. 소녀는 터덜터덜 걸어가다, 예전엔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는다. 계곡 소리였다. 쪼르륵 흐르는 계곡 소리에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 새 지저귐 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풀을 밟는 소리. 소녀는 오랜만에 조용하다 느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아마 행복해서 듣지 못했던 소리였을 테다. 소녀는 계곡에 발을 담그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다.

소녀는 버스를 탔다. 살짝 들뜬 기분으로. 바다이다.

소녀는 바다에 좋은 기억이 없다.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놀지만, 소녀는 깊은 바다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거기에, 개구쟁이 남자아이의 짓궂은 장난으로 바다에 내팽개쳐지고도 했다. 하지만 막상 밤바다는 침착하게 조용했다. 파도 소리. 바람에 모래 날리는 소리. 물과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 전등이 켜져 있는 소리. 모래 밟는 소리. 소녀는 파도를 밟으며 콧노래를 부른다.

소녀는 기차를 탔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와 함께. 들이다.

소녀는 언제나 자신이 없었다. 거울을 보면 못생긴 얼굴, 작은 키, 소극적인 성격에 평범한 성적은 언제나 소녀에게 짜증으로 다가왔다. 짜증은 어느 순간 열등감이 되었고, 열등감은 자기혐오가 되었다. 소녀는 처음 와보는 듯한 이곳에서 익숙함을 느끼게 된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자갈 밟는 소리. 새 지저귐. 곤충 소리. 소녀는 걷다가 알게 된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가족들은 사실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자신이 가족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녀는 걷다가 알게 된다.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사실 자신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관심 표현이었다는 것을. 친구들도 사람들 대하는게 조금 서툴렀을 뿐이라는 것을. 자신이 부정적으로 친구들을 생각했다는 것을. 소녀는 스스로 입을 다물고 스스로 고립시켰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소녀는 앞으로 더 걷다 보게 된다. 꽃밭을.

꽃밭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핑크색, 보라색 푸른 하늘과 너무 조화롭게 아우러진 풍경은 소녀가 감히 닿을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소녀는 주저 앉았다. 소녀는 눈물이 나왔다. 왜 나는 아름답지 못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난 걸까? 그러다 문득 바람이 소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린다. 바람에 꽃잎들이 웃는 소리. 꽃잎에 나비가 앉는 소리. 벌의 소리. 구름 움직이는 소리. 태양이 따뜻하게 나를 비춰주는 소리. 소녀는 깨달았다. 스스로가 아름답지 못하게, 스스로가 못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밍을 한다.

버스를 타고 소녀는 도시로 다시 돌아왔다. 소녀는 처음과는 다른 도시의 소리들이 들렸다. 자동차 배기음. 클락션 소리. 날카로운 사람들의 음성들이 아닌. 카페의 문에 달린 따스한 종소리. 사람들의 웃는 소리. 신호등 소리. 그리고 바람에 옷이 날리는 소리. 소녀는 자신감을 갖고 한 걸음 내딛는다. 소녀는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